우치동물원 동물들 열악한 시설에 수감생활

대부분 20~30년 된 낙후 시설
비좁은 콘크리트 바닥서 고통
채광 안되고 환경 다양성 부족
동물복지 고려한 시설 필요

언제쯤 바뀔까. 우치동물원의 열악한 시설 문제는 광주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빠지지 않고 지적되는 단골 메뉴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가 지난 30일 국회에서 발표한 '공영동물원실태조사'에서도 광주 우치공원 동물원(이하 우치동물원)의 열악한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측은 "우치동물원은 동물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20~30년정도 전에 시설로 낙후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본적 동물복지를 제공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연구소측 분석이다.

우치동물원은 12만 1302㎡면적에서 106종 663개체의 동물이 생활하고 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만 49종 125개체에 이르고 멸종위기야생생물은 7종 19개체, 천연기념물도 5종 30개체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 형편 등을 이유로 동물사별로 시설 개보수를 진행하면서 벵골호랑이 동물사 시설은 콘크리트 바닥에 비좁고 해가 비치지 않는 공간이 많았다.

아시아흑곰사도 관람객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데 집중한 전형적인 옛날식 동물사를 탈피하지 못해 지나치게 단조롭고 좁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폐쇄된 파충관도 자연광 자외선 채광도가 나쁜 것으로 지적받았다. 특히 설가타거북 사육환경은 창이 매우 작고 채광도가 나빠 자외선 조사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높은 곳에 올라 주변을 살피고 휴식을 취하는 습성을 갖고 있는 사막여우의 사육시설도 방사장만 넓을 뿐 성격에 맞는 구조물 등을 갖추지 못해 은신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다마사슴이 머무르는 사육사도 단단한 흙바닥과 울타리가 쳐진 나무만 있어 종일 풀을 뜯어 먹는 습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청금강앵무와 홍금강앵무가 함께 머무르는 앵무새사도 환경적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앵무새들의 경우 횃대를 높이 설치해 먹이를 매달아주는 방법으로 움직임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동물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높은 곳에서 머무르며 이동을 할수 있는 횃대같은 시설이 필요하지만 미흡하다는 것이다.

실태조사는 동물복지를 신경쓰지 않는 현재의 상태가 지속되면 동물들의 수감생활에 심각한 정신병까지 걸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동물의 자폐증이라 불리는 '정형행동'(정형행동은 동물들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특정한 목적 없이 같은 경로를 걸어다니거나 자해를 하는 등 의미 없는 반복행동을 하는 것)의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영동물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편, 동물들의 습성을 파악한 동물사 설계로 동물복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대표는 "공영동물원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예산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며 "동물복지와 생물 보전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처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의 운영이나 국가가 직접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우치공원 다마사슴사. 사슴은 하루 종일 풀을 뜯어 먹는 습성이 있는데 방사장 내부가 단단한 흙바닥으로 이뤄져 동물 습성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우치동물원의 청금강앵무 사육공간. 높은 곳에서 머무르며 이동을 할수 있는 시설이 미흡하다는 게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실태조사 결과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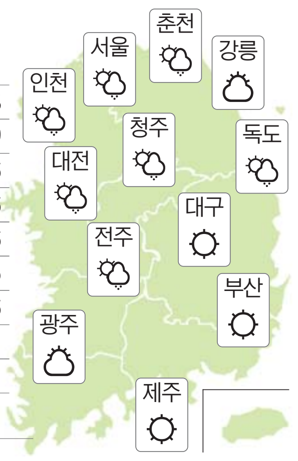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뜸	07:30	달뜸	13:11
해짐	18:03	달짐	02:38

입춘(立春)

구름 많고 기온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다.

광 주	구름많음	-4/9	보 성	구름많음	-7/8
목 포	구름많음	-4/5	순 천	구름많음	-3/9
여 수	구름많음	-1/8	영 광	구름많음	-5/6
나 주	구름많음	-7/8	진 도	구름많음	-4/6
완 도	구름많음	-2/9	전 주	차차흐려져눈	-4/6
구 례	구름많음	-7/9	군 산	구름많음	-5/5
강 진	구름많음	-5/9	남 원	구름많음	-9/6
해 남	구름많음	-6/7	흑산도	구름많음	2/6
장 성	구름많음	-6/8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5
	먼바다(북)	북서~북	0.5~1.5	북서~북	1.0~2.5
	먼바다(남)	북서~북	0.5~1.5	북서~북	1.0~2.5
남해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먼바다(서)	북서~북	1.0~1.5	북서~북	0.5~1.5
	먼바다(동)	북서~북	0.5~1.5	북서~북	0.5~1.5

◇ 생활지수

감기	매우 높음
뇌졸증	매우 높음
미세먼지	보통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2:04	09:28
	15:23	21:31
여수	11:02	04:59
	23:22	17:05

◇ 주간 날씨

5(수)	6(목)	7(금)	8(토)	9(일)	10(월)	11(화)
-4/1	-6/5	-3/7	0/7	-2/8	2/11	1/12

광주 남구 청소년 문화카페 3곳 운영

7일까지 참여 사업자 모집

광주시 남구에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문화전용공간이 조성된다.

3일 남구에 따르면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전용공간'인 '청소년 문화카페'를 조성키로 하고 관련 사업자를 오는 7일까지 모집한다.

남구는 청소년의 감성을 키우는 휴식형(놀이),거점형(커뮤니티), 수공예·목공예 등의 체험형(교육)등으로 나눠 청소년 문화카페 3곳을 운영할 예정으로 1곳당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참여하려면 남구 내 청소년 시설 및 청소년 단체·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으로 연면적 33㎡ 이상의 공간·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남구 관계자는 "어린이·청소년이 자유롭게 이용하고 참여하는 청소년 전용 공간을 확보,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 전용 공간으로 활용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등록은 유치원, 운영은 학원식 반일제 교습
학벌없는 사회, 영어유치원 실태조사 촉구

광주교육청서 기자회견

학벌없는사회 광주시민모임은 3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본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대상 영어학원(영어유치원) 운영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학벌없는사회가 지적하는 영어유치원은 유치원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실상 학원식으로 편법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이다.

학벌없는사회는 "유아 부모 커뮤니티(맘카페), 학원장과 유선전화 상담, 학원소재지 탐방, 각종 제보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광주시 일부 학원에서 편법으로 반일제 이상 유아대상 교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학벌없는사회는 영어유치원의 ▲과도한 교습비(연령대별로 60만~90만원, 방과후까지 100만원 육박) ▲장시간 학습노동(일반유치원보다 1시간 길어) ▲문어발식 확장 운영(같은 주소지에서 여러 유치원 운영) ▲알선 및 부당이득 행위(유치원 원장이 영어유치원 등록 유도) ▲사회적 양극화 심화(영어유치원 신도시 밀집 현상) ▲안일한 행정지도(유치원 운영하지만 학원 등록으로 법 적용 피해와)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학벌없는사회는 "특권교육의 출발점으로 일컬어지는 영어유치원이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을 부추기고 유아를 대상으로 장시간 학습부담을 주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교육청 공무원 2893명 정기인사
학교현장 밀착 지원 시스템 구축에 역점

신임 교육국장 이승오 교장

광주시교육청이 3일 교육공무원 289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3월 1일 자로 단행했다. 〈인사명단 22면〉

광주시교육청은 이날 유치원과 초·중·특수학교 교(원)장·교(원)감·교육 전문직 187명(유치원 12, 초등 69, 중등 106), 교사 2706명(유치원 68, 초등 1314, 중등 1324)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신임 교육국장에는 학교경영 경험이 풍부한 광주일고 이승오 교장이, 정책국장에는 이강수 본청 초등교육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동부교육장은 공모를 통해 김철호 조봉초 교장이 임명됐으며, 창의융합교육원장에는 양정기 본청 교육국장, 학생교육원장에는 대광여고 교장으로 파견된 유양식 정책기획과 장학관, 유아교육진흥원장에는 채미숙 유아특수교육과 장학관이 나란히 자리를 옮기게 됐다.

또 김수강 유아특수교육과장은 본청 초등교육과장으로, 강영 교육연구정보원 부장은 유아특수교육과장으로 이동한다.

이번 인사는 혁신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학교현장을 밀착 지원하는 교육지원 시스템 구축에 맞춰 진행됐다. 특히 학교폭력 심의 업무의 교육지원청 이관과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내실있는 준비를 위해 관련 전문직을 확대 배치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옛 광주교도소 유골 감식 결과 발표 국과수 회의 연기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공동묘지 합장묘에서 지난달 19일 무더기로 발견된 신원미상의 유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1차 감식 결과발표가 미뤄진다.

3일 5·18기념재단 측에 따르면 오는 6일로 예정돼 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회의가 신종코로나 때문에 잠정 연기됐다.

당초 6일에는 옛 광주교도소 무연고자 합장묘에서 발굴된 신원미상의 유골의 1차 분류작업 결과와 이후 조사 방법 등을 논의하기로 돼 있었다.

기념재단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로 이동을 최소화 하기 위해 회의가 연기됐다"면서 "추후 3월 중 회의가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